



보도자료

2015.10.5(월)



국회의원
김영우
(포천시·연천군)

(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27호 Tel:02-784-1521 / Fax:02-788-0141

(우) 487-800 경기도 포천시 구절초로 12(신읍동) 3층 Tel:031-533-0700 / Fax:031-533-0791

(우) 486-903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43 3층 Tel:031-832-8855 / Fax:031-832-8866

외국인 환자 현황, 한국 외교의 바로미터 될 수 있다

- (6자회담 당사국) 미국 16만, 중국 20만, 일본 10만, 러시아 9만명
- 미국, 중국, 러시아 환자 급증할 때 오로지 일본만 증감 반복
- 2014년 한국 의료 이용 외국인 환자 국적 총 191개국, 100명 이상도 56개국
- 아랍에미리트 6년간 155배 증가, 평균 진료비 1500만원 최고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보건복지부의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의 환자만 55만명에 달하고, 미·중·러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8.4%, 41.7%, 32.5%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14.9%로 우리 의료시장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2009년 4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이후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와 그로 인한 진료수입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09년 60,201명이었던 외국인 환자 수는 2014년 266,501명으로 집계되었고, 6년 사이 누적 환자 수는 90만명이 넘어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누적 외국인 환자 수 1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 2014년 한국 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총 191개국이고, 이 중 100명 이상 유입 국가는 56개국으로 2009년 28개국에서 6년 사이 정확히 2배 증가했다.
- 국가별 환자 수는 중국이 제일 많아 2009년 4,725명이었던 중국 환자는 연평균 증가율 41.7%로 2014년에는 79,481명을 기록,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기간 미국은 14천명에서 35천명으로 3배, 러시아는 1,758명에서 32천명으로 18배나 증가한 반면, 일본은 13천명에서 14천명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 외국인 환자수가 가장 급증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로 2009년 17명에 불과했던 환자 수가 2014년 2633명으로 약 155배나 증가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1인당 평균 진료비가 1,537여만 원으로 100명 이상 환자 방문 국가 중 가장 높다.

- 2014년 기준 100명 이상 환자 방문 국가 중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91만원으로 아랍에미리트와 비교하면 무려 17배나 차이난다.
- 우리에게 가장 많은 진료수입을 안겨준 국가는 중국으로 1403억원, 다음이 러시아 1,111억원, 미국 563억원인데, 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일본의 경우 몽골의 절반 수준인 131억원에 불과했다.
- 한편,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합작 의료기관, 단독 의료기관 등 해외에 진출해있는 국내 의료기관은 2010년 전체 58개에서 2015년 125개 기관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 올해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다녀온 김영우 의원은 “이번 아주반 대상 국가였던 중국, 필리핀, 일본, 몽골 4국가의 2014년 외국인환자 수만 10만 8652명(전체의 40.8%)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료한류’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몽골의 경우 한국의 민간 의료봉사 등이 활성화되어 한국 의료진에 대한 몽골의 신뢰가 상당히 보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일본의 경우 감사위원들 험한 분위기가 걱정되었는데, 일본인 환자 수가 2011년 22,49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14년 현재 14,336명으로 줄어들었다. 한일관계에 따라 일본인 환자 수가 좌우되는 것아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우리 외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의료외교, 의료한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한국 의료진이 해외에서 불법, 무허가 의료 활동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국내에서도 이른바 의료관광 외국인들이 불법·무허가 시술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하단 첨부

1. 2009~2014년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2. 2009~2014년 국내 진료 외국인 환자 증가 현황
3. 주요 국적별 진료수입 현황
4.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2009~2014년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적	2014 /2009	연평균 증가율
중국	4,725	12,789	19,222	32,503	56,075	79,481	204,795	17	41.7
미국	13,976	21,338	27,529	30,582	32,750	35,491	161,666	3	8.4
러시아	1,758	5,098	9,651	16,438	24,026	31,829	88,800	18	32.5
일본	12,997	11,035	22,491	19,744	16,849	14,336	97,452	1	△14.9
몽골	850	1,860	3,266	8,407	12,034	12,803	39,220	15	64
카자흐	128	346	732	1,633	2,890	8,029	13,758	63	177.8
베트남	327	921	1,336	2,231	2,988	3,728	11,531	11	24.8
캐나다	984	1,714	2,051	2,756	2,770	2,941	13,216	3	6.2
UAE	17	54	158	342	1,151	2,633	4,355	155	128.8
필리핀	356	957	1,178	1,787	1,848	2,032	8,158	6	10
우즈벡	113	298	491	824	1,358	1,904	4,988	17	40.2
전체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901,470	15	34.7

<2009~2014년 국내 진료 외국인 환자 증가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입원	3,915	7,987	11,945	14,809	20,137	23,855	43.5
외래	56,286	63,891	95,810	128,711	172,702	211,672	36.5
건강검진		9,911	14,542	15,944	14,379	20,974	20.6
합계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34.7

출처 : 보건복지부

〈주요 국적별 진료수입 현황〉

[단위 : 억원, 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가율 (총진료수입)
	총 진료수입	1인당 평균진료비	총 진료수입(비중)	1인당 진료비	
중국	1,016	181	1,403(25.2%)	177	38.1
러시아	879	366	1,111(20.0%)	349	26.4
미국	508	155	563(10.1%)	156	10.8
아랍에미레이트	204	1,771	405(7.3%)	1,537	98.5
카자흐스탄	132	456	332(6.0%)	413	151.5
몽골	306	254	264(4.7%)	206	13.7
일본	167	99	131(2.3%)	91	21.6
베트남	55	184	46(0.8%)	122	16.4
인도네시아	21	193	36(0.6%)	222	71.4
우즈베키스탄	19	136	25(0.4%)	131	31.6
사우디아라비아	19	146	20(0.4%)	171	5.3

출처 : 보건복지부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국가별	프랜차 이징	라이센싱 (브랜드)	합작	단독	위탁경영	자선 진료소	M&A	기타	합계
중국	15	11							45
미국	5	7							35
몽골		3	1	2		1		5	12
동남아	1	3	2	3	1	3		5	18
UAE		1			2			2	5
카자흐 스탄		1	1	1		1			4
기타 (캐나다, 인도, 일본, 대만)	4			2					6
합계	25	26	10	31	5	5	2	21	125

출처 : 보건복지부